박희승의
현대인을 위한 禪의 지혜 ⑩ 화에 대한 달라이라마의 인내와 성철 스님의 참회



▶한줄 요약
참회란 우리가 나와 너, 선과 악의 양변을 떠나 중도로 보면 상대의 허물을 내 허물로 보고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불교의 정견과 지혜로 살아간다면 내 안의 평안도 쉽게 이루어지고 세상의 평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상대방 용서보다 스스로 참회가 먼저

현대인들이 가장 괴로움을 느끼는 스트레스와 화에서 벗어나려면 일시적인 효과의 힐링 명상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깨달음 명상을 해야 한다. 이번에는 불교의 깨달음 명상 중에서 티벳불교의 최고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인내와 용서의 지혜와 대비되는 한국불교의 대표 선지식 성철스님의 참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화는 만병의 원인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 한다. 아마도 현대인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닐까? 캐나다 학자 한스 셀리에는 스트레스를 "정신적, 육체적 균형과 안정을 깨뜨리는 자극에 대하여 자신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변화에 저항하는 반응"이라고 정의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은 초조 불안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진다. 현대 사회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 관계에서는 이것이 더 심해진다. 이처럼 스트레스 받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알코올이나 담배, 그리고 더 나아가 약물과 마약에 의지하기도 한다.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쌓이면 신경 쇠약이나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이어진다.

현대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건강의학자들은 스트레스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건강의 증표라고도 한다. 그리하여 급기야 〈스트레스는 나의 힘〉이라는 책도 나와 있다. 문제는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쌓이고 해소의 적절한 시기나 방법을 몰라 이것이 우울증이나 화병으로 깊어질 때가 문제다.

스트레스와 화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유행하는 웰빙, 힐링, 웰니스 등의 말들이 대부분 이러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관광, 치유, 음식, 여행, 운동, 명상, 요가, 심리상담, 의료, 명상앱 등과 관련된 사업이 크게 성장하여 하나의 산업이 되어 가고 있다.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니 참선 명상도 이제는 시장논리와 사업으로 접근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스트레스와 화에 괴로움을 느끼는 대중들은 그 자체가 고통인데 이제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이 참선 명상도 상업화되고 소비의 대상으로 여겨지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흐름에 대하여 우리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인들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화의 괴로움을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지혜와 수행으로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할 때 불교의 참선 명상의 지혜는 더 많은 대중들에게 믿음을 주고 삶의 나침반이 될 것이다.

달라이라마의 화에 대한 대처법, 인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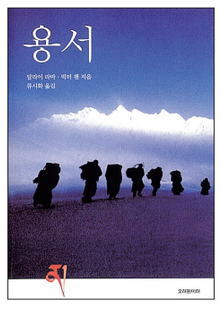
현존하는 세계 불교의 최고 지도자가 달라이라마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 정권의 티벳 강점과 탄압에 맞서 인도로 망명하여 티벳불교의 세계화를 이끌어 내었고, 불교의 지혜와 자비 정신을 널리 전하고 있는 분이 달라이라마다. 그는 대중과 잘 소통하면서도 법문의 깊이가 있다. 특히 달라이라마는 티벳을 강점하고 살상과 억압을 멈추지 않는 중국을 용서하는 말과 행동으로 불교의 자비와 평화 정신을 실천으로 증명하고 있다. 달라이라마는 지구촌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달라이라마는 〈달라이라마, 화를 말하다〉 법문집을 내었는데, 이 책은 8세기 인도 산띠데바 스님의 저서 〈입보리행론〉 제6장 인욕품 강의를 엮어낸 것이다. 이 책에서 달라이라마는 이렇게 말한다.

달라이라마 역시 현대인이 직면한 최고의 괴로움이 화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입보리행론〉 "인욕품" 첫 번째 게송 "일천 겁 동안 쌓아 올린 보시와 붓다에게 올린 공양 등의 (어떤) 선행이라 하더라도 단 한 번의 화로 모두 무너질 수 있다"고 한 말씀을 근거로 '화나 증오를 일으키면 천 겁 동안 쌓은 공덕을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다' 고 강조한다.

〈입보리행론〉 두 번째 게송에는 "증오만큼 악한 것은 없으며 인내만큼 견디기 힘든 고행도 없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인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한다. 달라이라마는 〈입보리행론〉의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인내를 수행하라' 는 가르침을 화가 많은 이들에게 가장 노력해야 하는 수행법으로 제시한다. 즉 수행자는 인내하고 감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달라이라마의 화에 대한 대처법은 인내(忍耐) 수행을 하는 것이다. 인내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이라고 사전에서 정의한다. 현대인이 고통 받는 화에 대한 달라이라마의 대처법은 참고 견디라는 것이다. 이것은 대승불교의 육바라밀 중 인욕바라밀을 말한다. 대승보살행을 닦는 수행자는 마땅히 인욕바라밀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용서란 남이 잘못했다는 것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기에
남 인격 근본적 모독과 같아
내가 참회하는 것 먼저돼야

달라이라마의 용서

화에 대한 달라이라마의 대처와 수행법이 인내라면 '용서' 는 나를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중심이다. 달라이라마와 친한 중국인 친구 사이의 대화를 기록한 〈용서〉라는 책이 있다. '용서' 는 달라이라마가 40년 넘게 벌이고 있는 비폭력 평화운동의 중심 사상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미움이나 나쁜 감정을 키워 나간다면, 내 자신의 마음의 평화만 깨어질 뿐이다. 하지만 그를 용서한다면 내 마음은 평화를 되찾을 것이다. 용서해야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용서는 단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에서 스스로를 놓아주는 일이다. 그러므로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이자 사랑이다."

중국으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고 있는 티벳불교와 달라이라마의 인내 수행과 용서의 지혜는 참으로 감동적이다. 선과 악, 내 편과 네 편 등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내와 용서를 말하고 몸소 실천하는 달라이라마는 가히 세계불교계 최고의 지도자라 칭송할 만하다. 특히 인내와 용서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실천하는 가르침은 한국불교가 특히 배울 점이라 하겠다.

성철스님의 "우리 불교의 근본에는 용서가 없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 성철스님은 〈자기를 바로 봅시다〉라는 한글 법어집에서 '용서' 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사실 불교에서는 '용서' 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없다고 잘못한 사람과 싸우라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나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다, 그러니 잘한 내가 잘못한 너를 용서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상대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하는 말입니다. 상대의 인격에 대한 큰 모욕입니다.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의 불성은 꼭 같다(一切衆生 皆有佛性)' 고 주장합니다. 성불한 부처님이나 죄를 많이 지어 무간지옥에 있는 중생이나 자성(自性) 자리, 실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겉을 보고 미워하거나 비방하거나 한층 더 나아가서 세속 말의 용서는 할 수 없습니다." (1982년 음력 5월 29일 해인총림 방장 대중법어)

달라이라마가 강조하는 용서에 대하여 성철스님께서는 "우리 불교에서는 '용서' 라는 말이 없다"고 한다. 용서라는 말은 너는 잘못했고, 나는 잘했다는 양변에서 하는 말이니 중도 정견(正見)과 정어(正語)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처럼 티벳불교를 대표하는 달라이라마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성철스님 사이에도 견해 차이가 있다. 같은 대승불교문화권임에도 '용서' 에 대한 성철스님과 달라이라마의 입장 차이는 적지 않다. 성철스님은 가장 선한 이를 부처라 하고 가장 악한 이를 마구니라 하는데,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이나 부처님의 안목에서 보면 마구니와 부처는 모두 연기로 존재하니 한 몸이고 이름만 다를 뿐이라 한다.

성철스님 "용서 아니라 참회"

그렇다면, 상대의 잘못과 악행에 대하여 불교에는 '용서' 가 없다면, 불교의 바른 대안은 무엇일까? 성철스님은 '용서' 대신 '참회' 를 제시한다.

"흔히 보면 '용서한다, 용서한다' 고 말하는데, 우리 불교의 근본에는 '용서' 란 없습니다. 용서란 내가 잘하고 남이 잘못했다는 것인데,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이며,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남의 인격을 근본적으로 모독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내가 '참회' 해야지 그 사람을 '용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사전에서는 '용서' 라는 말을 빼야 한다고 늘 말합니다."

선(禪)의 종전인 〈육조단경〉 "참회(懺悔)"편에 "참이란 몸이 다하도록 잘못을 짓지 않는 것이고 회란 과거의 잘못을 아는 것이다"라고 한다. 참회란 우리가 나와 너, 선과 악의 양변을 떠나 중도로 보면 상대의 허물을 내 허물로 보고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불교의 정견과 지혜로 살아간다면 내 안의 평안도 쉽게 이루어지고 세상의 평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달라이라마의 인내와 용서도 훌륭한 수행이지만, 용서도 아직 양변에서 하는 것이니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 나와 남의 분별을 떠나 중도 정견을 세워서 나의 하물은 물론이거니와 남의 허물과 잘못도 나의 잘못으로 참회한다면, 어찌 시비 분별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이 가리왕에게 사지를 절단당하는 악행에도 화와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무아의 지혜이리라.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스트레스와 화나는 경계에서도 무아의 정견을 세운다면, 우리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평상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지도교수 /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공단연등(고리용)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